

배포 일시	2022. 6. 29.(수)		
담당 부서 <총괄>	항공정책실	책임자	과 장 강성습 (044-201-4328)
	공항정책과	담당자	사무관 이종문 (044-201-4337)
보도일시	2022년 7월 1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6. 30.(목) 18:00 이후 보도 가능		

공항 혁신 선도할 글로벌 전문가 한자리에 - 30일 공항 혁신 위한 첫 국제포럼서 지속가능성·ESG·신기술 논의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한국공항공사(사장 윤형중), 인천국제공항공사(사장 김경욱)와 공동으로 6월 30일(목) 오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『공항 혁신 국제포럼(International Forum for Airport Innovation)』을 개최했다.
- 영국, 독일, 일본 등 주요 공항 관계자와 엠브라에르社 등 국·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이번 포럼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적용, 미래 항공모빌리티 도입 등에 따른 공항의 영향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올해 처음 열렸다.
 - * 영국 히드로, 독일 프랑크푸르트, 일본 나리타, ACI(세계공항협회) 관계자 등
 - ** 엠브라에르(EMBRAER) : 브라질 항공우주 기업으로 상업용 항공기 제작 세계 3위 업체
- 특히, 이번 포럼의 청중으로 업계와 학계 등 다수의 공항분야 관계자와 한국공항공사,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초청으로 국내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해외 교육생 약 40명이 함께 참석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전문가 패널과 토론,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.
 - * 폴란드 CPK(신공항社) 초청교육생, ICAO-국토부 항공경영 석사과정 교육생 등

- 이번 『**공항 혁신 국제포럼**』은 3개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, 세션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- (1세션) ESG 실천 및 지속가능성, 포스트 코로나,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 등 글로벌 주제와 동향을 살펴보고 공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제공항협회(Airport Council International, ACI) 담당자 등이 주제 발표를 하였다.
 - (2세션) 고려대학교 이철웅 교수를 좌장으로 프랑크푸르트, 나리타 등 해외 주요 공항의 신기술 적용 사례와 각 공항별 미래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,
 - (3세션) 한국항공대학교 백호중 교수를 좌장으로 항공기 기술개발 동향과 이에 따른 공항 인프라 변화에 대한 발표, 도심항공교통(UAM)을 비롯한 차세대 항공교통수단 도입이 불러올 공항 인프라 혁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.
-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“올해는 우리나라가 ICAO 가입 70년이 되는 해일뿐만 아니라, 9월 ICAO 총회에서 이사국 8연임이 결정되는 중요한 해”라면서,
 - “그간 추진해온 ICAO 회원국 교육, 장학사업과 함께 7월에는 아태지역 항공청장 국제회의와 국제항공협력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 항공산업에 대한 공동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. 이번 포럼도 항공분야 발전을 위한 노력 중 하나”라고 밝혔다.
 - *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,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): 국제민간항공의 평화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계 항공업계의 정책과 질서를 총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(1947년)된 UN 전문기구(회원국 193개국)
 - 또한 “최근 ESG 실천에 따른 친환경, 지속가능성이 더욱 강조되고, UAM 상용화 추진 등 항공 모빌리티의 혁신이 기존 항공교통, 공항의 패러다임을 전환을 이루게 될 것”이라면서,

- “이번 포럼이 이러한 최근 트렌드에 대한 항공·공항 분야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”한다고 덧붙였다.

담당부서 <총괄>	한국공항공사 신공항총괄부	책임자	부 장	김성렬 (02-2660-2801)
		담당자	대 리	염시완 (02-2660-2803)
	인천국제공항공사 대외협력팀	책임자	팀 장	임채운 (032-741-5388)
		담당자	차 장	김헌준 (032-741-5661)

